

# ‘오! 문희’ 이희준 “연기는 늘 새롭고 가장 재미있는 일”

### 능청스러운 충청도 사투리...불같은 성격에 ‘황두원’ 변신 스크린 첫 주연...“극 끝까지 끌고가는 역할에 어깨 무거워” 뽕소니범 잡기위한 ‘좌충우돌’ 농촌 수사극...‘충청도’ 배경 엄니 ‘문희’ 역 한 나문희와 ‘모자(母子)’ 찰떡 케미 선보여

“처음엔 ‘두원’이란 인물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딸을 챙기고, 회사도 다니고, 문득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의 영웅으로 느껴졌죠.”

배우 이희준이 영화 ‘오! 문희’로 능청스러운 충청도 사투리에 불같은 성격의 ‘황두원’으로 변신했다.

지난 1월 말 개봉한 전작 ‘남산의 부장들’에서 보여준 강렬함과 달리 투박하지만 푸근한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남자다.

이번 영화는 이희준의 스크린 첫 주연작이다.

그는 지난 4일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극을 끝까지 끌고 가는 역할이어서 어깨가 무거웠다”며 “주연이라는 게 외롭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주연 배우로서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남산의 부장들”, ‘미쓰백’, ‘1987’, ‘죄악의 하루’ 등 모두 항상 주연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어요. ‘남산의 부장들’ 때는 이병헌·이성민·곽도원 선배가 있었기에 제 것만 충실히 해내면 선배들이 다 받아주고 놀이처럼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혼자 끌어가야 하는 신이 많아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꼈죠.”

‘오! 문희’는 먼저 시나리오로 읽어보니까 내용

도 흥미로웠고,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상대 역이 나문희였기에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영화 ‘오! 문희’는 뽕소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엄니 ‘문희’(나문희)와 물불 안 가리는 무대배 아들 ‘두원’이 범인을 잡기 위해 펼치는 좌충우돌 농촌 수사극이다.

평화로운 충청도 금산을 배경으로 ‘두원’은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엄니 ‘문희’와 함께 단서를 하나하나 찾으며 딸 ‘보미’(이진주)의 뽕소니 범인을 잡으러 나선다.

이희준도 아기 아빠다. 그는 “아직 9개월 된 아이를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두원’은 6살 난 딸을 키우고 어머니까지 돌보는 상황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처음엔 ‘두원’이란 인물을 알았다. “초반에 금산의 ‘두원’ 집에서 촬영하다가 잠깐 낮잠이 들었어요. 막 깨어나 보니 꿈이 실제 같고, ‘아, 이게 실제면 어떡하지?’란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이 사람이 버티고 있나 존경스러웠고, 미안해졌어요. 그렇게 극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 인물이 3차 세계대전을 막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만큼 엄마와 딸을 지켜내는 일상의 중요한 영웅이라고 생각했죠.”

이희준은 엄니 ‘문희’ 역을 한 나문희와 ‘모자(母子)’로 찰떡 케미를 보여준다. 그는 “선생

님은 끝까지 높임말을 쓰시면서 할 말은 다 하신다”고 웃으며 첫 대본 리딩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촬영 전 처음 리딩을 하는데 첫 대사가 ‘엄니’를 부르며 말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선생님이 ‘희준씨 좀 더 맛있게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니’ 대사만 한 30번 한 것 같아요.”

그는 “선생님이 원하는 걸 한 번에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바로 말해주셔서 참 좋았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첫 촬영 후 에피소드도 들려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문희에게 ‘희준씨, 연기 너무 잘한다. 마음대로 해봐’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당황스러운 한편 기뻐다”고 웃음을 보였다.

촬영 전 배역 관련 상황이나 사람을 직접 경험하는 걸 즐긴다고 했다. 이번에도 정세교 감독과 이야기하던 중 농산의 한 집을 촬영 장소 후보로 보겠다는 소리에 곧바로 내려가 하룻밤을 묵으며 충청도 사투리와 일상을 관찰했다.

그는 “아저씨의 순수한 모습에 ‘두원’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았고 큰 도움이 됐다”면서 “회사에서는 혼자 다니기가 위협하다고 걱정하지만, 실제 사람들을 본다는 게 연기에 자극이 되고 즐겁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만날 일이 없을 사람들을 만나고, 나문희 선생님처럼 80세쯤 되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희준은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안방극장과 스크린에 진출했다.

단역과 조연을 주로 하다가 지난 2012년 KBS 2TV 주말극 ‘빙글빙글 굴러온 당신’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인기를 끌었다.

“한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친구들이 더 때를까. 나는 왜 이렇게 길을 돌아가나.’ 가끔 답답함도 느껴지만 그게 제 성장이고 인생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받아들여지게 되고, 편해졌죠. 열심히 하다 보니 ‘오! 문희’ 영화도 만났죠. 계획을 미리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나는 좋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즐겁게 하는 거죠.”

작품을 선택할 때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희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배우 이성민과 함께 출연하는 영화 ‘햄섬 가이즈’ 촬영도 앞두고 있다.

이희준은 “딱히 기준은 없고 대본을 보고 가슴이 뛰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하면 한다”며 “최근에는 저예산의 고봉수라는 괴짜 감독의 ‘텔

타 보이즈’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지난주에 그 감독과 실제 촬영도 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실득을 해서라도 하는 편”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59년 연기 인생의 나문희처럼 계속 연기를 할 것이냐고 묻자 “제가 실증도 잘 내는 스타일인데 연기는 계속 재미있다”며 “다른 사람을 계속 연기하다 보니 늘 새로운 일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 사람(캐릭터)의 고민과 눈물, 고통과 스트레스 등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을 하죠. 지금도 연기가 어렵지만, 늘 새롭고 재미있어요. 나문희 선생님을 보면 본능적으로 캐릭터가 마음에, 심장에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 ‘놀면 뭐하니’ 지미유, ‘예스맨 김종민’에 소름 “이 사람은 썩”

### ‘환불원정대’ 매니저 2차 면접 현장 등 멤버들 지원나선 모습 공개



‘놀면 뭐하니?’ 환불원정대가 비대면 시대에 맞춘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환불원정대’ 매니저 2차 면접 현장 등 멤버들 지원에 나선 지미 유(유재석)의 모습이 공개됐다.

‘환불원정대’ 멤버들과 계약을 완료한 지미 유는 제작과 활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걸그룹 제작이 처음인 지미 유는 90년대를 대표하는 레전드 제작자 이상민을 만나 제작자로 위치를 지키는 방법과 매니저, 음반제작, 멤버들의 관계 도모 등 제작 전반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구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매니저 면접에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지미 유의 모습에 이상민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매니저”, “예?”를 많이 하

는 매니저”가 제작자를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매니저라고 설명하며 김종민을 추천했다.

지미 유는 ‘환불원정대’ 전원이 추천한 광희와 이상민이 추천한 김종민의 매니저 면접을 진행했다. 광희는 지미 유도 감당 불가한 텐션과 거침없는 입담 폭주로 15분 ‘광속 탈락’을 기록해 웃음을 선사했다.

이어 등장한 김종민은 이상민의 조언대로 해맑은 미소로 “예?”를 반복하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예스맨’의 면모를 드러내 지미 유를 소름 돋게 했다.

지미 유는 “이 사람은 썩이다! 이상민 말대로 나를 빛나게 해줄 친구”라고 평했다. 지난주 지미 유와 혼신의 멜로디언 콜라보를 보여준 정재형과 함께 김종민은 환불원정대 매니저 주요 후보로 올라섰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환불원정대의 비대면 회의 모습도 공개됐다. 엄정화는 ‘만옥’, 이효리는 ‘전옥’, 제시와 화사는 각각 ‘은비’와 ‘실비’로 예명을 확정된 가운데 전옥의 베일에 싸인 남자친구 ‘조지 리’(이상순)가 깜짝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조지 리’는 현란한 기타실력으로 전옥과 함께 만옥의 히트곡 ‘초대’를 라이브로 들려주며 매력을 뽐냈다.

한편 이날 지난주 ‘호빵’에 이어 지미 유가 준비한 기발한 ‘앞 광고’가 펼쳐져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회의 도중 갑자기 지미 유는 “여러분들 오늘은 따뜻한 엄마 집 밥 먹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쳤고 다 함께 “엄마”를 불렀다. 그러자 ‘엄마의 손맛’을 연상시키는 브랜드의 햄버거와 치킨 세트가 나오는 반전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뉴스스

## BTS, ‘쇼! 음악중심’ 1위...2주 연속 정상

### 출연하지 않고도 정상 차지



그들 ‘방탄소년단’(BTS)가 5일 MBC TV ‘쇼! 음악중심’ 1위를 차지했다. (사진 = ‘쇼! 음악중심’ 캡처)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쇼! 음악중심’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5일 방송된 MBC TV ‘쇼! 음악중심’에 출연하지 않고도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9월 1주 차 정상을 차지했다. 혼성 프로젝트 그룹 ‘썩스리’의 ‘다시 여

기 바닷가’와 래퍼 제시의 ‘눈누나(NUNU NANA)’를 제쳤다.

2주 연속 1위이기도 하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9일 ‘쇼! 음악중심’에서도 썩스리와 그룹 ‘있지(ITZY)’를 따돌리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새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했다.

디스코 팝 장르(Disco Pop)인 이 노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팬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 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차트에서도 1위에 등극했다. 한국 가수가 ‘핫 100’ 차트 정상을 차지한 건 이번이 최하다.

한편 이날 ‘쇼! 음악중심’에는 그룹 러블리즈, 있지, 씨엘씨(CLC), 크래비티(CRAVITY), 카드(KARD), 드림캐처, 에이티즈 등이 출연했다.

## 한예슬 “남자친구 없어...‘나 혼자 산다’ 초대해 달라”

배우 한예슬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한예슬은 5일 유튜브 채널 개설 1주년을 맞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남자친구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진 이상형 질문에는 “항상 바뀌는 것 같다. 그 사람만의 매력에 끌리는 것 같다”면서 “굳이 이상형을 따져본다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귀여운 친구다. 어린 시절 로맨스를

떠오르게 하는 낭만적인 연애를 추구한다”고 답했다.

다음 작품에서 맡고 싶은 배역에 대한 질문에는 악역, 공포 영화, 판타지 등을 거론하며 MBC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언급했다. 한 누리꾼이 채팅창을 통해 “예능 나 혼자 산다’ 나와주세요”라고 말하자 한예슬은 “나 혼자 산다’ 초대해주세요”라고 화답했다. 한예슬은 ‘내 인생의 황금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로 현재를 꼽으며 “지금 이 제일 행복하다”고 밝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을 지목하며 “연기자로서 자긍심을 심어준 캐릭터와 작품”이라고 말했다.

한예슬은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끝으로 당분간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다.

한예슬은 “남자친구 없어...‘나 혼자 산다’ 초대해 달라”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올해의 여름곡’ 선정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라디오 디즈니 선정 ‘올해의 여름곡’의 주인공이 됐다.

5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국 유명 방송 라디오 디즈니(Radio Disney)는 4일(현지시간) 공식 SNS를 통해 ‘올해의 여름곡(Radio Disney’s Song of the Summer)’을 발표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5월 발표한 미니 2집 ‘꿈의 장: ETERNITY’의 타이틀곡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Can’t You

See Me?)’으로 ‘올해의 여름곡’에 선정됐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라디오 디즈니 공식 SNS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많은 분이 노래를 즐겨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이어 “모아 여러분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원동력이 되어 주는 모아 덕분에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하고 싶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월 데뷔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꿈의 장’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발매한 ‘꿈의 장: ETERNITY’는 전 세계 50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 일본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와 주간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